김우정 · 류지훈 (komares@chol.com)

## 대한드래곤보트협회

**올해 12개 시 · 도협회, 2개 시지부협회 확대**

대한드래곤보트협회가 2월 23일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협회 임원 및 시 · 도협회 관계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임원 선임(안) 및 퇴임 그리고 신규 협회 가맹 등록 4가지 안건을 상정 의안으로 승인처리 하였다.

민홍기 회장은 의장 인사말을 통해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했던 우리 협회 활동이 다시 일상을 회복하여 2년 만에 재개된 창원드래곤보트대회, 아라뱃길 드래곤보트대회 등을 성황리에 마무리하였고, 드래곤보트 경기위원 연수를 개설하여 전국적으로 드래곤보트 전문인을 다양하게 양성하여 국내외로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을 많이 확보하여 협회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올해는 전라남도드래곤보트협회가 신규 가맹 등록하였으며, 경상남도 진주시드래곤보트협회와 경상남도 창원시드래곤보트협회가 시지부협회로 신규 가맹 등록하여 2023년부터 대한드래곤보트협회는 12개 시 · 도협회와 2개 시지부협회로 조직이 확대되어 운영된다.

아울러 2023년에는 6월, 경북 상주에서 개최되는 해양수산부장관배 전국드래곤보트대회를 시작으로 9월, 코리아오픈부산국제드래곤보트대회, 10월 창원국제드래곤보트대회, 아라뱃길 드래곤보트대회 등 국내외 많은 동호인이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드래곤보트대회를 개최하여 드래곤보트협회 활동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복지기금 회계 분리 · 독립,**
**외부감사제도 도입 등 투명성 제고**
**"선원정책 · 제도 개선 요구에 합리적 응답이면 협력"**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이 2월 16일 2023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3년만에 대면으로 개최했다.

이번 전국대의원대회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회의 ·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개최해오던 것을 대면회의로 전환하며 전체 대의원 140명 중 116명과 유관기관 · 단체 대표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선원노련은 선원의 안전과 복지, 고용불안 문제 해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실직선원의 생계지원과 복지대책 촉구 △선원 임금 전면 비과세 추진 △유급휴가 확대, 재해보상제도 개선, 장시간 노동철폐 등 선원 노동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박성용 선원노련 위원장의 선거공약사항인 산하 조직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된 산별노조 건설 추진 계획이 나왔다. 이를 위해 박 위원장은 상설기구 설치, 신규 및 미자립 가맹조합 지원 등 선원노련 전 조직의 강력한 연대와 단결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박 위원장은 선원노련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해 "미조직 복지기금 회계를 분리, 독립시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공인회계사를 통한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해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겠다"며 "선원정책의 완성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서로 협력하는 상생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부와 사측이 선원노련의 선원정책과 제도 개선 요구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응답을 준다면 해운 · 수산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 협력을 분명히 약속한다"며 "정당한 요구에도 비상식적 적대적인 대응만을 한다면 정부와 사측은 강력한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김형동, 황보승희 국회의원과 함께 유관기관 · 단체 대표자들도 대거 참석했다. 노동계에선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운수물류총련 서종수 의장, 항운노련 김상식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측에선 정태순 한국해운협회 회장, 문충도 한국해운조합 회장, 윤명길 한국원양산업협회 회장, 강수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선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성권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양성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청장, 김민종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원장,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세계 153개국 700여개 운수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국제운수노련(ITF)의 아시아태평양지역 토시히코 스미노 의장과 홍콩과 싱가포르의 선원노조 대표들도 참석해 축하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선원노련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며, 사회 ·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책무를 가슴에 담아 빈틈없는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한국도선사협회

**이사회서 협회 로스쿨 장학생 9명 선발,**
**정기총회 부회장, 이사 등 임원 선의 의결**

한국도선사협회가 2월 22일 서울 여의도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1차 이사회 및 제4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3년도 협회 로스쿨 장학생 9명을 신규 선발하고 총 1억 2,000만원을 장학금으로 후원하기로 의결했다.

정기총회에서는 권혁길 감사가 2022년도 정기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협회 부회장, 이사 등 임원 선임을 의결했다. 또한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한 체육대회를 5월 포항지역에서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항만 물동량 및 퇴직인원 등을 감안한 2023년도 도선수습생 선발(안)을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정기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내용을 확인했다.

## 한국무역협회(KITA)

**디지털 기반 무역 컨설팅,**
**글로벌 테스트베드 사업 등 추진**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 기울이고자"**

한국무역협회(KITA)가 2월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무역협회 회원사 대표 6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협회는 올해 사업목표로 '무역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신 수출 동력 발굴'을 제시하고 최근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5대

사업 전략 및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KITA가 제시한 5대 사업 전략은 △무역현장 애로 발굴 및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지원 △신 통상질서 대응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디지털 기반 서비스 강화 및 무역 인프라 확충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경쟁력 강화 △신성장 수출 산업 육성 및 무역의 부가가치 제고이며, 협회는 목표 달성을 위한 15대 세부 실천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KITA는 현장의 애로를 발굴하여 기업 친화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디지털 기반 무역 컨설팅 및 애로 상담 서비스 운영을 통해 회원사와의 상시 소통 채널 운영을 통한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민간 아웃리치를 확대하여 통상 현안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과 적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신수출 동력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 및 연구 조사 강화를 통해 수출 구조 혁신에 힘쓸 계획이다.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무역 인력 양성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글로벌 테스트베드 사업 추진을 통한 혁신 생태계 구축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총회에 참석한 무역협회 회원사 대표들은 무역협회가 정부, 국회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이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무역업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한국선급(KR)

**당기순익 84억 6천만원 달성…**
**윤성호, 김경복 상근임원으로 선임**
**"새 경영체제로 고객만족 및 사업성과 향상"**

△윤성호 신임 상근임원(왼쪽)과 김경복 신임 상근임원(오른쪽)

한국선급(KR)이 2월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6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KR 총회는 회무보고 등 보고사항에 이어 2022년 결산(안), 상근임원 선임 승인(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KR은 지난해 현존선·기자재 검사 수입 및 연구수입의 증가 등으로 수입이 전년 대비 12.1% 상승한 1,598억원을 기록하여 당기순이익 84억 6,000만원을 달성했다고 보고하고 결산(안)을 승인 받았다.

이와 함께 새 경영진 구성을 위한 상근임원 선임(안)도 승인 받았다. △현 이영석 사업본부장 △현 윤부근 검사·협약본부장 △현 김연태 기술본부장 3명이 재선임을 승인을 받았으며, 신규 선임된 상근임원은 윤성호, 김경복 2명이다.

윤성호 신임 상근임원은 1992년 KR에 입사해 시드니·부산 지부장, 인사팀장 등을 거쳐 감사실장을 역임했다. 김경복 신임 상근임원은 2011년 KR에 입사해 기획조정팀장, 서울지부장 등을 거쳐 전략기획실장을 역임했다. 임기는 재선임 및 신규 선임 임원 모두 오는 2023년 2월 25일부터 2026년 2월 24일까지 3년 간이다. 이형철 KR 회장은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고금리·고물가 등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분주히 노력해 온 결과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등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다"며 "올해는 전년보다 경제상황이 긍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신임 경영진과 함께 안정적으로 조직을 이끌며 고객만족과 사업성과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조선기자재업계 수출 기반 구축,**
**남미 지역 신규거점 기지 설립 계획**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KOMEA)이 2월 23일 신라스테이 서부산에서 제4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KOMEA는 2022년 사업수행 실적보고와 함께 2023년 사업계획 보고를 통해 올해 추진사업 전략을 확정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정기총회와 2부 행사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인의 날'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회원사 및 정부, 유관기관과 산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한데 모인 2부 행사에서 조선해양산업발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부산광역시장 표창, 조합 이사장 표창, 조선해양 우수기자재업체 인정서 수여를 통해 노고를 치하했다.

KOMEA는 정부의 지원아래 조선해양기자재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7개의 해외 거점기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해외 거점기지별로 약 100여개 이상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조선해양기자재기업 직수출 및 A/S 업무 등 혁신적인 수출 기반 구축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또한 브라질 등 남미 지역의 신조선 및 해양플랜트 수주를 위한 신규 과제로 브라질에 신규 거점기지를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조선산업의 인력확충을 위해 정부로부터 KOMEA는 '조선분야 외국인력 고용을 위한 추천 절차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의해 외국인 용접공 도입을 위한 '조선기자재 기업 확인서' 발급 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를 통해 조선기자재 기업 확인서 발급 업무를 시행하고 외국인 용접공 도입 지원으로 조선해양기자재업계 인력난 해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국내 조선·기자재업체 품질 향상**
**경쟁력 강화에 역량 집중**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이하. 조선협회)가 2월 15일 협회 사무실에서 1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올해 조선협회 정기총회에서는 2022년도 결산과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 비상근이사 선임(안), 규정 개정(안) 4개를 심의·의결했다.

조선협회는 올해 사업방향으로 △공조체제 강화 및 시장질서 확립 △생산성 향상 및 기술협력 활동 강화 △기술연구 개발지원 △조선기자재 협력강화 및 품질향상 △국제기술 협력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 △안전보건·환경노무 관리의 공조 도모 △인력개발지원 △국제협력 강화 △해양플랜트 업무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주요사업 △정보 관리 및 홍보 기능 강화 △협회 사무국 운영 효율화로 결정했다.

이번 사업전략으로 각 조선소장 간담회를 열어 조선소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정보 교류와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LNG 추진선 보급 활성화를 목표로 기술협의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조선기자재 품질향상과 수급을 원활히하기 위해 국내 기자재업체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TF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선산업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활성화 사업을 펼쳐 조선해양산업의 전반적인 인력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설계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고숙련 기술인력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정보위원회 운영, 해양플랜트 기자재 운영 및 표준화 활동 강화 등으로 국내 조선·기자재업체의 품질 향상 및 디지털·친환경 기술 확보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유상철 HJ중공업 대표이사를 비상근 이사로 선임했다. 유상철 이사의 임기는 올해 2월 20부터 2025년 6월 18일까지 2년간이다.

## 한국항만물류협회

### 항만요율 현실화, 항만하역장비 현대화, 재해예방시설 지원 등 추진
### 올해 수입예산 36억 8,389만원 책정

한국항만물류협회가 2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3년도 제1차 이사회 및 제4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2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승인받고 올해 주요사업 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안), 결손 처분(안)을 심의 ·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노삼석 항만물류협회 회장, 최종욱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 박창기 동방 대표이사, 유주환 KCTC 대표이사, 이창훈 CJ대한통운 경인사업본부장 등 위원장을 포함해 대의원 74명과 감사 2명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 협회는 회원사 권익신장 8건, 항만운영관련 12건, 항만 안전 및 교육관련 6건, 항만 노무관련 5건, 정보자료 발간 및 홍보 5건, 기금관리 2건 총 38개의 사업을 올해 주요사업의 방향으로 설정했다.

먼저 '항만시설 보안료 요율 현실화'를 추진한다. 부두운영사가 보안에 투입하는 비용을 보안료 징수를 통해 충당할 수 있도록 공컨테이너, 환적화물 보안료 징수 및 요율 인상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보안료 현실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항만하역장비 현대화 자금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항만하역장비 현대화 지원 사업을 받지 못하는 항만공사가 없는 항만 하역업체도 현대화 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상 항만을 확대할 방침이다.

항만하역장의 안전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항만물류사업자가 안전시설장비 도입 시 실비금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하역업체가 안전관리 부분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신설된 항만안전관리비 제도를 정착시키고 전국 항만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안전문화 마련을 위해 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적립한 항만안전관리비의 10%를 '항만안전기금'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컨'부두 운영사 협의회 개최 △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규정 연장 · 확대 △항만물류산업 교류 협력 추진 △항만하역요금 조정 △연안하역 카페리 자동화물 요금 및 냉동품 하역요금 개선 △항만물류분야 규제 개혁 및 개선 △항만인력공급체계 개편, 항만 노무 관리 안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회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2022년 수입은 35억 1,663만원이며 인건비 등 일반 관리비로 38억 6,287만원을 지출했다. 사업 외 수익은 9억 6,943만원, 당기순이익은 6억 1,272만원을 기록했다. 올해 수입예산은 36억 8,389만원으로 책정했다.

노삼석 항만물류협회 회장은 "지난해 협회는 항만업계의 발전과 회원사 공동의 권익 신장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올해도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어 이러한 난관을 슬기롭게 노 · 사 · 정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 회원사의 경영수지 개선과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사업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국통합물류협회

### 제8대 회장에 롯데글로벌로지스 박찬복 대표 선임

한국통합물류협회가 2월 23일 태화빌딩 하모니홀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2022년도 결산(안)과 2023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승인받고, 회장 선임과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다.

올해 협회는 예산을 30억 3,250만원으로 편성하고, 물류산업 선진화와 회원사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겠다는 마음으로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대응 활성화 △물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인식개선 △회원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활동 전개 △효율적 사업계획 수행을 위한 사무국 역량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통합물류협회 '제8대 회장'으로 롯데글로비스 박찬복 대표를 선임하는 것을 의결하였으며, 2023년 2월에 임기만료 예정인 임원 △LX판토스 최원혁 대표 △CJ대한통운 강신호 대표 △한진 노삼석 대표 △현대글로비스 이규복 대표 △동원로엑스 박성순 대표 등 15인을 재선임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승인하였다.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 박성동 상근부총재 등 5인 부총재, 김언식 사무총장 등 2인 이사 선임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 2월 23일 한국해운협회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202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정관 개정 및 규정 제

정 · 개정(안) 승인 △임원 재 · 선임 및 퇴임(안) 승인 이상 4개의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진행하였다.

해양소년단연맹은 2023년도 사업목표를 '조직운영 활성화 및 프로그램 운영 강화'로 세우고, △조직활성화 및 다각적 활동프로그램 개선 △안정적 재정운영 기반 마련 △홈페이지 기능강화 및 관리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부, 유관기관 업 · 단체 협력 확대 △지방 · 지부 연맹 및 수탁시설 운영의 활성화 △엔드코로나 대응과 활동프로그램 개발을 중점적으로 23개 분야 115개 사업을 35억 1,880만원의 예산안으로 추진하겠다 밝혔다.

또한 올해 선임된 임원으로는 부총재 △수협은행 강신숙 은행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김준석 이사장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박성용 위원장 △한국해운협회 양창호 상근부회장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박성동 상근부총재와 이사 △㈜한유 박문호 부사장 △한국해양소년단연맹 김언식 사무총장이 선임됐다.

명예임원인 고문으로는 △대한민국해군발전협회 엄현성 회장 △대한민국해병대전우회중앙회 이상훈 총재 2명이 추대되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연맹은 '지방연맹 사무소 주소변경 및 가맹 미등록에 따른 조치' '사무총장 및 상임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의 위임 근거 보완'에 관한 정관 개정도 승인받았다.

이날 총회에서 새롭게 선임된 임원 중 박성동 상근부총재는 해양수산부의 다양한 근무 경험을 토대로 "해양소년단 대 · 내외 여건을 냉철히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본부와 지방연맹의 조직 경영력을 강화하고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등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하였다.

## 한국국제물류협회

### 김영무 전 해운협회 부회장, 엄재동 대한항공 본부장에 감사패 수여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가 2월 2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2023 한국국제물류협회 정기총회 및 물류인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총회는 협회 회원사 대표를 비롯한 경기평택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UPA),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사업실적 및 결산, 감사보고, 2023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 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202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는 감사보고를 받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어 KIFFA는 2023년도 주요 키워드로 '지식공유' '정보 제공' '포럼 교류' '플랫폼 역할' '제휴 강화'를 선정하며, 올해 주요 사업계획에서 "협회 회원사 1,000개사, 회원사업 체계 확립 및 회원 확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에 앞장서는 KIFFA의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KIFFA의 사업계획으로는 △신규 회원 가입 확대 △협회 관계 기관 면담 및 MOU 체결 △회원관리 프로그램 개편 및 세관업무 대행 추진 △사회공헌 △교육개발 확대 △수출 바우처 사업 추진 등이 마련됐다. 특히 KIFFA는 "회원사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국 대학에서 국제통상 또는 물류학과 졸업자(예정자)로부터 물류업계 취업 희망자를 모집 및 접수하고 인턴 면접 지원과 회원사 채용을 연계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 과정 형태로 상하반기 1개월간 국제물류 위탁 교육을 시행하여 국제물류업계 채용 난을 해소할 것이며, 회원사 재직자 대상의 무료교육을 더욱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소프라노 서운정, 가수 신수아 2명의 홍보대사 위촉이 진행되었고, 위촉된 홍보대사의 축하 공연과 2023 물류인상 시상식이 이어졌다.

'2023 물류인상' 시상은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 등 물류 산업발전에 기여한 기업에 공로패, 표창장이 수여되었다. KIFFA의 사업추진과 발전에 협조가 큰 기관들에 수여하는 KIFFA 감사패에는 김영무 전(前) 한국해운협회 부회장과 엄재동 대한항공 화물사업 본부장, 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 이희정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이 수여받았으며, 서울특별시 시장상에는 박광현 제일항역 회장과 김광수 포스코플로우 대표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상에는 자이언트네트워크 그룹, 트리플크라운 인터내셔날이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또한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상에는 신태성 코스타해운항공 대표가, 울산항만공사 사장상에는 김지선 경동이앤에스 상무와 최웅경 대림 상무가, 부산항만공사 사장상에는 임태윤 엘엔씨로지스틱스 대표, 인천항만공사 사장상에는 김성년 일신해운항공 대표,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상에는 류제엽 서중물류 대표가 표창장과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원제철 KIFFA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화물연대 두 차례 파업, 운임인상, 원자재 상승, 우리나라 경제 또한 침체로 무역수지는 1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고환율과 고금리는 국제물류기업들의 경영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라며 "협회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부, 학계, 산업계 포럼과 세미나 개최를 통해 국제물류업계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고 특히 각 부처로 나뉘어 있는 물류산업을 한데 모으는 물류청 개설과 대통령실 물류비서관 신설로 신속한 글로벌 물류정책이 필요하다고 계속 제언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 한국예선업협동조합

### "예선업 법령을 잘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 2월 16일 켄싱턴호텔서 '제21회 정기총회' 개최... 조합원사 약 40여명 참석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이 2월 16일 켄싱턴호텔에서 조합원사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동 총회에서는 2022년도 결산 및 이익잉여금처분안과 2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두 안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2022년도 결산 및 사업실적을 감사한 장갑순 ㈜선화 대표이사는 "예선사용료를 매년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조합에서 수행하는 공제사업에 조합원사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예선업협동조합의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예선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선사용료 조정, 볼륨디스카운트(V/D) 등 제도개선을 위해 해운협회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해상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과 예선작업 현장점검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키로 하였다.

또한 정부의 친환경 선박보급 확대에 맞춰 친환경 선박건조와 함께 예선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선서비스이용자 만족도 평가, 항만물류시스템(PORT-MIS)에 예선정보 운영활성화 방안 등 정부 시책에서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외에도 조합은 △항만예선 선원의 노무관리 메뉴얼 제작 △선원 · 선박 · P&I 공제사업 수행 △비조합원사의 조합 가입 확대 추진 △예선 관련 법령 및 조합 규정집 발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PORT-MIS 예선정보 운영 활성화방안'은 2월 해양수산부의 요청으로 추가돼 지난 1월 16일에 열린 이사회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계획안이다.

김일동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선박입출항법'에 따른 예선업의 법령을 잘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난 3-4년간 고정되었던 예선요율

을 적게라도 해마다 인상시키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올해 하반기부터 심의위원회와 중앙예선업협의회를 거쳐서 예선요율을 해마다 인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수부가 '2050년도까지 모든 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예선업을 친환경선박에 대입시킨다면 기준에 충족하는 선박은 없다. 현재 예선의 친환경 기준이 확실하지 않으며,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우리가 '천국의 밥상'을 잘 유지해 법을 잘 지키고 서로가 위해나간다면 조직이 더욱 튼튼하고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기총회 자리에서 조해석 부산지부 지부장은 "비조합원사의 조합 가입을 확대하기보다 5년이 넘게 수금되지 않은 미수금을 해결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으며, 김 이사장은 "최근 수입이 늘어나며 오랫동안 내지 못했던 회원사들이 다행히 미수금을 1,000-2,000만원씩이라도 내고 있다. 2-3년 내 다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용완 대산항 대동항업㈜ 대표는 "공식 석상에서 대산항 예선사용료 문제로 예선율이 인상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대산항에서 예선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기분이 좋지 않다"며 "지방 예선의 문제인 만큼 지방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옆에서 전면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같은 날 한국예선업협동조합과 교보생명 간 '상호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도 마련됐다. 해양